

“예수의 마음을 닮은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병원 기독교여성봉사회 48주년 기념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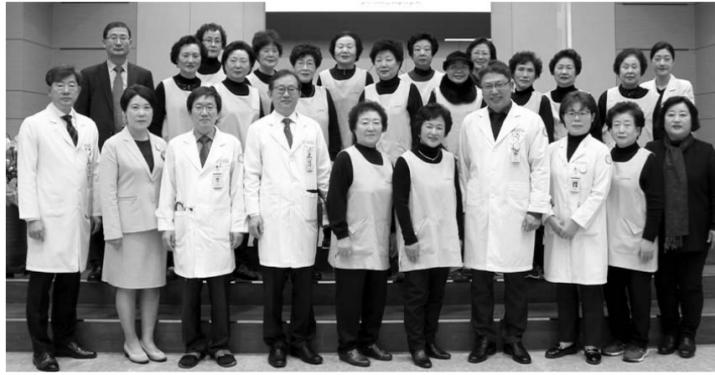
예수병원 기독교여성봉사회(핑크레이디)는 22일 창립 48주년 기념예배 '성자의 귀한 몸'을 열었다고 밝혔다.

예수병원 기독교여성봉사회는 1970년에 예수병원 설대위 병원장과 윌슨 선교사의 부인인 낸시 윌슨 여사에 의해 핑크레이디(Pink Lady)라는 이름으로 봉사 활동을 시작했고 4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정선범 원목실장의 '진정한 봉사'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달없는 사랑의 수고로 이웃과 함께 행하는것이 진정한 봉사다."며,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닮은 뜨거운 사랑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자."고 말했다.

임혜정 기독교여성봉사회장은 "우리 봉사는 미약하지만 예수병원 120년 헌신의 정신을 본받아 언제나 변함없 봉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창영 예수병원장은 "오늘도 각 분야에서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병원의 발전을 돕는 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예수병원 기독교여성봉사회(핑크레이디)는 22일 창립 48주년 기념예배 '성자의 귀한 몸'을 열었다고 밝혔다.

한편, 따뜻한 모습을 닮은 핑크색 가운을 입은 전주 시 각 교회 여성 110여명은 오늘도 예수병원 기독교여성봉사회 봉사활동 분야인 가재부, 안내부, 의

래진료 안내부, 찬양부, 이마봉부 등 12곳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 모악로타리, 송천2동 주민센터에 겨울패딩 전달

국제로타리3670지구 전주모악로타리클럽(회장 염상섭)에서 지난 22일 송천2동(동장 임익철) 관내 가정위탁아동 10명에게 240여 만원 상당 겨울패딩을 전달하며 밝고 건강한 성장을 응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정위탁아동이란, 부모가 질병, 가출, 이혼, 사망 등으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건전한 가정을 선정하여 단기 또는 장기간 대리양육보호를 받는 아동으로 이날 전달 물품은 우리 미래의 꿈나무인 가정위탁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전주모악로타리클럽은 송천2동과 "2018~2019년도 천년전주 결연봉사 협약식"을 맺고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참여와 봉사활동을 펼쳐 오고 있어 지역사회 내 제의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로부터도 큰 호감을 얻고 있다.

전주모악로타리클럽 염상섭 회장은 "우리가 사는 바로 옆에 어려운 이웃이 있어 나눔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 손길이 닿지 않는 소외된 우리 이웃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익철 송천2동장은 "송천2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꾸준한 봉사활동에 지역주민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전주모악로타리클럽 염상섭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이 있어 송천2동의 청소년들은 밝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배우며 자라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우정청, 우수고객과 함께하는 문화·사랑나눔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지난 21일 우체국예금 우수고객 초청, '우수고객과 함께하는 문화, 사랑나눔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우체국 예금성장을 위해 힘써 준 우수고객에게 예금사업을 설명, 고객과 함께하는 문화힐링체험과 사회공헌 사랑나눔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사랑나눔 행사를 위해 김성철 청장과 우수고객은 전주 시 소재 사회복지 시설인 삼성휴민빌을 찾아 겨울생필품 전달과 감장나눔을 했다.

김인숙 삼성휴민빌원장은 "여러분들이 참여한 우체국 사랑나눔 행사가 원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공헌활동에 관심을 가져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성철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전북우체국은 지역특색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착한금융, 국민금융으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결론

▲반병주(우주군청 근무 반청원·강희순씨 장남)·유로미(유준옥·엄숙경씨 장녀)양= 일시: 11월 24일 오전 11시, 장소: The-K 웨딩홀 교원공예회관 4층 오페라홀

부들마을 서정덕시, 무주 무풍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원 기탁

무주군 무풍면 무풍장학회(회장 이대석)는 지난 19일 지성리 부들마을에 거주하는 서정덕 할아버지(86세)가 사과농사를 지으며 저축한 1,000만원을 무풍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무풍면 지성리 부들마을이 고향인 서정덕 할아버지는 "답배농사 지으면서 어렵게 살 때 고맙게도 아들 3형제가 모두 장학금 혜택을 받았었다"라며 "애들이 무풍 초·중학교 다닐 때였는데 학비 때문에 학교를 그만둘 뻔한 적도 있었지만 학업을 마쳤다"라고 전했다.

서 할아버지는 "잘 자란 아이들은 기업가부로, 은행직장장르, 회사원으로 평범하지만 다들 재물을 하는 사람들로 성장을 했다"라며 "뜻있지만 어려울 때 받았던 사랑, 고마움을 보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어려운 환경이지만 뜻있게 공부하고 있는 어린학생들이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내편이 많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 고향, 내 이웃을 위해 배울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서정덕 할아버지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3백 평 규모의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1979년 서울로 상경, 교회건물관리 일을 하면서 어렵게 자식들을 대학공부까지 시켰으며 장성한 자식들을 사회로 내보내고는 1999년 귀향했다.

귀향 후 벼농사와 사과농사를 지어온 서정덕 할아버지는 현재 기력이 약해져 농지를 임대 준 상태며 그간 농사를 지으면서 저축했던 돈 1천만 원을 무풍장학회 측에 기탁했다.

무풍장학회 이대석 회장은 "어르신께서 돈 천만 원과 함께 신문지에 콩팥 싸 들고 오셨던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잘 쓰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생활개선 임실연합회, 임실군에 애향장학금 100만원 전달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을 보탬니다." (사)한국생활개선 임실군연합회가 22일 군수실을 방문해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애향장학회가 1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앞선 3월 200여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한 데 이어 또 다시 장학금을 애향장학회에 전했다.

한국생활개선 임실군연합회는 농촌여성의 역량강화, 권익향상, 의식주 생활개선 및 농촌을 지켜나갈 여성농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다.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로 지역발전을 위한 선행을 몸소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훈훈한 모범이 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품격있는 공동체'... 민주평화노인회 전북총회 창립 발대식

22일 민주평화노인회 전라북도총회는 도청 대강당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품격있고 함께하는 공동체'란 슬로건으로 창립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는 정대철 민주평화당 상임고문과 송성환 전라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 창립을 축하했다.

최라도 민주평화노인회 전북도총회장은 인사말에서 "민주평화노인회는 노인의 일자리창출 복지증진과 소외받는 노약자, 장애인과 탈북동포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며, "기존 노인회하고 대립보다는 협력으로 차별화된 품격 있는 노인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승관 중앙총회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우리 노인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돌봄의 대상으로 안주하기보다는 그간에 갈고닦은 지혜와 식견을 바탕으로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성환 전북도의회장은 축사에서 "지혜와 경험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청장년 층 과의 소통 포용하는 세대 간 갈등해소 어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 등은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전했다. /송효철 기자



정읍시, 충주 고도원 명상치유센터서 직원 힐링프로그램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고도원의 아침편지 명상치유센터에서 읍·면·동 직원 28명을 대상으로 '2018 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힐링 프로그램은 휴식과 명상을 테마로 통나무명상, 향기 치유테라피, 경기명상 등을 통해 고질·약성민원 등 격무와 스트레스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실시했다.

나 자신에게 유쾌한 주파수를 보내어 '웬만하면 참자. 웬만하면 웃자'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캠프에 참여한 직원들은 재충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유진섭 시장은 직접 방문 격려를 통해 함께 프로그램에 동참하면서 화합과 소통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바쁜 일정을 잠시 되돌아보면서 느림의 미학을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재충전한 에너지로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에 더욱더 매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김제 생활개선회, 성덕면 벨엘요양원에 김장김치 전달

생활개선 김제시연합회(회장 심명순)에서는 도 생활개선회와 릴레이 김장 나눔행사를 갖고 김제시 성덕면 벨엘요양원에 김장김치 6박스과 쌀, 쌀과자를 전달했다.

매년 실시하는 릴레이 김장 나눔에는 생활개선회원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처럼 나섰으며 또 직접 재배한 배추와 무,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사용하여 열은 손을 녹여가면서 정겨운 모습으로 김치를 한걸 한걸 정성을 다 하면서 담갔다.

/김제=곽노태 기자

장수 번암면, 맞춤형 진절서비스 교육

장수군 번암면은 소풍간화를 통한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매달 2회 진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매달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아침 8시 30분에 진행되는 진절교육은 인사기법, 방문·전화 민원응대, 약성민원 대응 매뉴얼, 감정노동 스트레스 관리기법 등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팀별 순환 교육을 실시해 부서 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서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의 실효성 있는 혁신, 사회적가치 기반 조성 및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혁신 토론회를 20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부청 혁신담당자들이 참석해 조직내부 혁신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분야 규제 혁신을 위해 제출된 과제 검토 및 규제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불필요한 업무, 수직적 조직문화, 국민 체감이 낮은 업무처리 방식, 법령·제도상의 갑질 유발 요인 등 버려야 할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굴된 과제 목록으로는 마을기업 구성요건 중 출자자의 기준 완화, 공·사유림 매수 시 입목조사방법 개선, 산림사업 참여자격 제한기준 완화 등 산림분야 일자리창출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과제들이 선정되었다.

서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 토론회를 통해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서 이백파출소, 이륜차 안전모 씌워드리기 호응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 이백파출소(소장 김순호)는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모를 씌워드리라는 등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안전모 씌우기에 나선 이백파출소는 어르신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륜차 안전운전 수칙 등을 안내하면서 안전모에 대한 단속하기보다는 안전모를 씌워드리라는 활동에 나서면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김순호 이백파출소장은 "소홀히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는 것은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운전습관을 기자"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